

하나님 사랑

2026
Vol. 280

이웃사랑 ×

태어난김에 간호선교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디자인
 두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04

CENTER

마취통증의학과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08

MEDICINE ①

마취통증의학과 김유일 과장
 통증의 감옥, 대상포진 후 신경통 탈출
 통증질환

10

MEDICINE ②

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혜 과장
 초고령사회, 안전한 수술의 열쇠
 노인마취

12

TEAM

34병동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품격 있는 돌봄 공간

14

선교국 소식

간호대생 선교캠프
 파키스탄 단기선교
 의대생 선교캠프
 (사)의료선교협회 신임회장 김병선 과장

20

국내기독교병원 소개

고신대학교복음병원·팀솔데
 역사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향해



22

ALUMNI

서기향치과의원 서기향 원장
 귀한 추억과
 큰 영광으로 남은 시간

24

MISSION COLUMN

병리와 주명진 과장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26

THANKS

예수병원신협 50주년



28

PMC NEWS

언론 속 PMC

35

PMC ON

36

DONATION

후원 안내

38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마취통증의학과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1950년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64년 마취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한 데 이어 1968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부임하며 전문적인 마취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1970년 마취통증의학과 교실을 정식으로 운영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기반이 마련돼 현재에 이르렀다. 숙련된 의료진이 협력해 안전한 마취와 통증 치료로 전인적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한동수 과장



허현주 과장



이지혜 과장



오지윤 과장



백승민 과장



김유일 과장

수술 전 과정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현대 의학에서 수술이 성공하려면 집도하는 외과 의사의 역할뿐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마취를 단순히 '수술 중 잠을 재우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마취는 수술이라는 신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 폐, 뇌 등 주요 장기 기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절해 생명을 유지하는 전문적이고 중요한 의학 분야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저 질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숙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 전 환자의 전신 상태와 기저 질환을 면밀하게 평가해 가장 안전한 마취 방법을 계획한다. 수술이 시작되면 호흡부터 혈압, 심장 기능, 체온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조절하며 환자 생명을 지킨다. 수술 후에도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을 조절해 안전한 회복을 돕는다. 이처럼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까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수호자'라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온

1950년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전해왔다. 1964년 마취간호사가 시행하던 마취는 1968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부임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됐으며, 1970년 마취통증의학과 교실을 정식으로 운영하며 마취통증의학과 기반을 닦았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문의와 전공의, 마취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진이 함께 힘을 합쳐 환자에게 안전한 마취와 통증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학술 콘퍼런스와 증례 토의, 학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전인적인 의료를 실천하는 데 힘쓴다.

예수병원은 현재 14개 수술실을 운영하며 연간 약 1만 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이 모든 수술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묵묵히 힘을 더한다. 예수병원의 모든 수술 환자는 수술 전 마취 평가부터 수술 중 전문적인 마취 관리, 수술 후 회복 관리까지 마취통증의



김유일 주임과장

학과 전문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은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수병원의 의료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령·고위험 환자 마취의 보루

최근 의료 환경에서 주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는 고령 환자 증가다. 고령 환자는 심장, 폐, 신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마취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북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난도가 높은 중증 환자 수술 마취를 책임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고령 및 고위험 환자'에 특화된 마취 관리 시스템이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기능 저하, 당뇨, 고혈압 등 복합적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은 일반 환자보다 마취 후 회복 지연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 이에 수술 전 환자의 기저 질환과 전신 상태를 철저히 평가해 가장 안전한 마취 방법을 선택한다. 이와 함께 최신 환자 감시 장치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환자의 작은 변화까지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며 안전한 수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맞춤형 마취로 삶의 질 향상

과거에는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전신마취보다 부담이 덜하고 빠른 회복과 안전을 위해 '신경차단술(Nerve Block)'을 활용한 부분 마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수술 부위로 가는 신경만 정밀하게 찾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신마취가 부담스러운 고령 환자나 호흡기 질환자에게 획기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혹은 가벼운 진정 상태에서) 자가 호흡을 유지하며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마취 약제로 인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인지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적다. 수술 후에도 일정 시간 마취 효과가 이어져 '수술 후 통증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실에서의 마취뿐 아니라 만성 통증 치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예수병원은 1992년 통증 치료실을 개설해 다양한 급성·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 오고 있다. 신경 차단술과 약물치료 같은 치료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통증으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인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이 외에도 허리 통증, 목 통증, 신경통 등 다양한 만성 통증 질환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며 지역사회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쓴다.



오지윤 과장

환자의 안전과 치유를 위한 사명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120여 년 전 의료선교사들이 심어놓은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모든 구성원은 단순한 의료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안전한 회복을 돕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들이 통증의 공포 없이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수술실의 불을 밝히고 있다.



김유일 주임과장



한동수 과장

통증의 감옥, 대상포진 후 신경통 탈출 통증질환

마취통증의학과 김유일 과장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생소합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대상포진은 몸 한쪽에 물집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중장년층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보통은 발진이 회복되면서 통증도 사라지지만, 일부 환자는 피부가 다 나은 뒤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 이상 극심한 통증을 겪습니다.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해 발생하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특히 고령 환자일수록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호소하실 만큼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칼로 찌르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 타는 듯한 작열감은 물론, 심지어 옷깃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질통(Allodynia)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만성 통증은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으로 이어져 환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앓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령자, 초기 통증이 심했던 분, 발진 범위가 넓은 분들은 신경통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통증 조절'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항경련제, 항우울제, 국소 패치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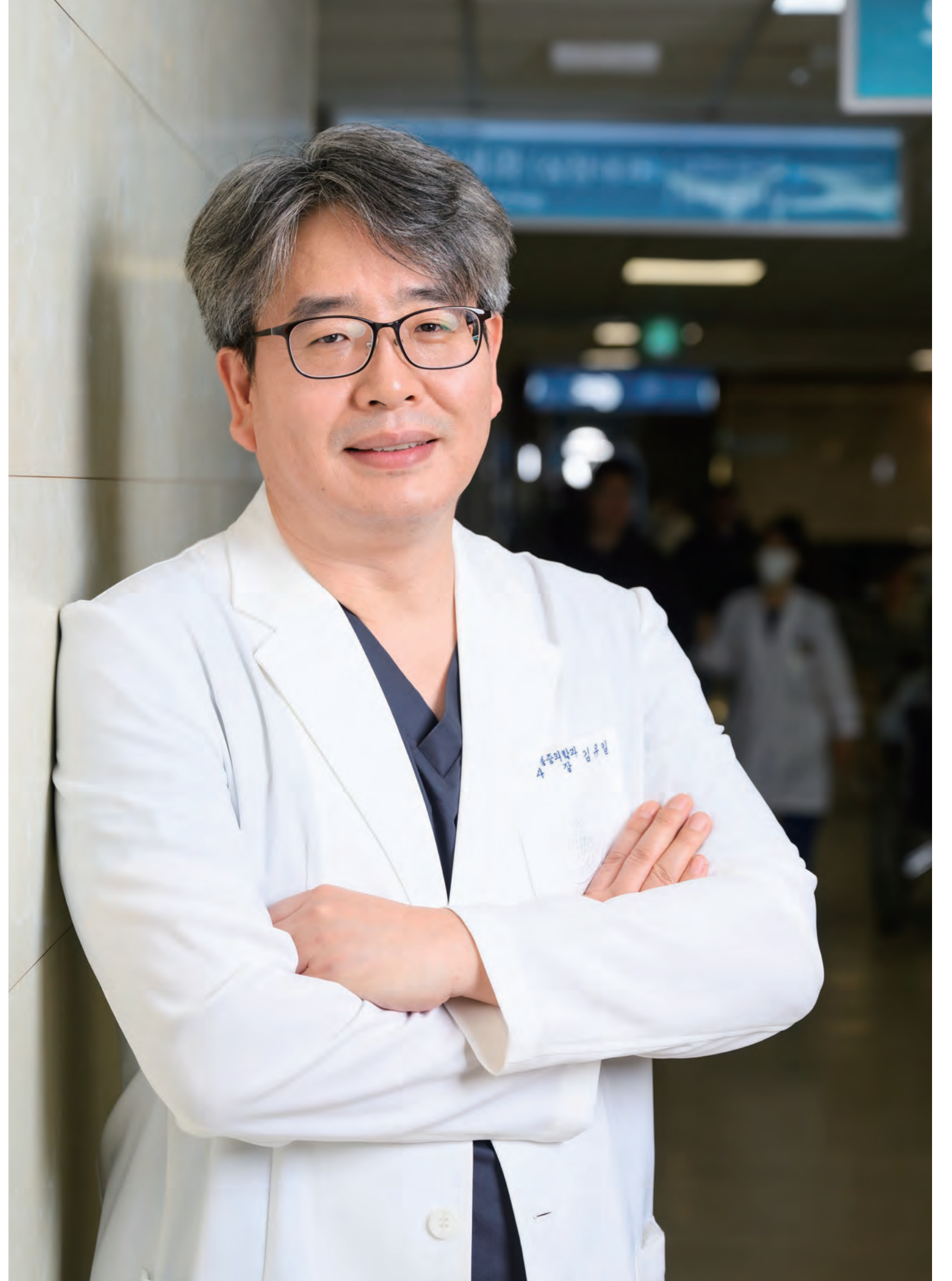
병행하여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다음 신경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해 염증이 생긴 신경 주위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여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미 만성화된 경우라도 고주파 열 응고술 등을 통해 통증 강도를 낮춰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치료는 단연 예방입니다.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백신은 발병률 자체를 낮출 뿐 아니라,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신경통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발진이 나타났다면 72시간 골든타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며, 통증이 느껴지는 즉시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 신경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증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인내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희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분들이 겪는 말 못 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리와 따뜻한 진료를 통해 여러분이 통증의 감옥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안전한 수술의 열쇠 노인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혜 과장

최근 수술실에서 느끼는 인구 변화의 체감 정도는 어떠신가요?

약 20여 년 전 전공의 시절에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마취가 흔치 않았고, 특히 100세가 넘는 분의 수술은 병원 전체가 긴장하며 준비하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의 21.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서는 80, 90세 어르신들을 매일 뵈게 되며, 100세 이상의 환자분들도 종종 수술대에 오르십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술실 내 마취통증의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 마취가 젊은 층의 마취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계통에서 기능적 예비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순환기, 호흡기, 신경계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동반 질환과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서 환자의 중증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노인 환자에게는 고도화된 지식과 세밀한 마취 관리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전 검사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을 예측하고 회복을 돕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노인 환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종류에 최적화된 맞춤형 마취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술기(수술 전후 전 기간) 동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심도 있는 감시 장치를 통해 환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를 시행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마취제'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와 질환의 중증도를 면밀히 평가하여 전문의가 내리는 최선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수술 후에도 회복실에서 폐 합병증이나 통증을 관리하며, 특히 노인에게 흔한 섬망이나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노인 마취는 별도의 연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희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노인 마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환자 한 분 한 분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취 전 면밀한 평가부터 수술 중 정밀한 감시, 그리고 수술 후 세심한 회복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명확히 안심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수술 후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은 오늘도 '안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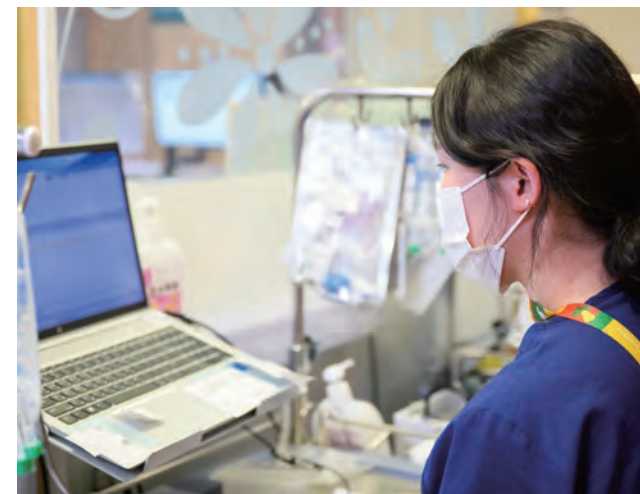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품격 있는 돌봄 공간

34병동

2011년 개소한 34병동은 예수병원을 대표하는 VIP 병동으로 환자 중심의 품격 있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성과 따뜻한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병동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34병동은 환자 개인에게 더욱 밀착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모듈 간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직접 간호하며 세밀하게 관찰하고, 책임간호사는 입·퇴원과 검사, 수술, 시술 일정을 조율하며 병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간호사는 병동 전체의 간호 환경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끈다. 간호조무사는 병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한다.

영아부터 고령 환자까지 다양한 연령층 환자를 돌보는 병동인 만큼 높은 전문성과 상황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20명의 숙련된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간호 기술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능력도 갖췄다. 이는 환자에게는 깊은 신뢰를 전하고, 보호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 VIP 병동을 찾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편안함과 사생활 보호. 이에 34병동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환자가 병실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인간호와 기도가 만들어낸 치유의 순간

예수병원 34병동에는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은 특별한 사례가 있다. 2021년 봄, 당시 112세(1909년생)였던 김귀아 할머니의 수술과 회복 이야기다. 할머니는 집에서 넘어지며 대퇴부(엉덩관절) 골절로 예수병원을 찾았다. 100세를 훌쩍 넘긴 초고령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수술 진행은 의료진과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시 걷고 싶다’는 할머니의 강한 의지와 의료진의 판단이 맞물리며 수술이 진행됐다. 이후 회복 과정에서 34병동 간호진의 세심한 돌봄이 이어졌다. 24시간 환자 상태 변화를 관찰하며 욕창 예방과 호흡기 관리 등 고령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안전한 수술과 빠른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함께했다. 이는 34병동이 실천하는 전인간호와 간호선교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간호사들에게 “고맙워요”, “오늘도 고생하네”와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다. 놀랍게도 큰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앞으로도 숙련된 전문성으로 환자의 몸을 돌보고 따뜻한 마음과 기도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전인간호를 묵묵히 실천하고자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여기 오길 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환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심으로 함께한다.

제8회 간호대생 선교캠프

태어난김에 간호선교

캠프기간 2026. 2. 5.(목) ~ 7.(토)

캠프장소 전주예수병원 예배실

프로그램 RN강사의 20여 개 다양한 강의 패널 토의



간호대생 선교캠프 스케치 영상



간호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야 확실히 깨달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바닥이었던 제 신앙이 2박 3일 만에 짝 채워진 느낌이에요. 간호사로서의 비전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대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운 시간이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멋지고 배울 점이 많은 교수님들, 강사님들을 통해 참가비가 아깝지 않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긴 것처럼 답답했는데, 뜨거운 예배를 통해 제 비전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기도로 준비한 선교캠프라는 게 잘 느껴졌어요! 번아웃 때문에 도망치고 싶던 마음이 사르르 녹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는 확신이 다시 생겼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던 시간이 되어 소중했습니다.

간호와 간호학과에 대해 생각된 고민들이 캠프를 통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의 말씀과 실습과 취업에 대해 조언과 많은 말씀 받아서 은혜되고 얻은 게 많은 행복한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갑니다!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믿음으로 걷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은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 함께 선교라는 비전을 두고 나아가고 기도하며 배워갈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막막했는데, 따뜻한 조언과 기도 덕분에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열정적인 찬양 속에 내 예배가 살아났고, 나랑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큰 위로였어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 간호대생들끼리 한 곳에 모여 각자의 신앙관을 공유하며 연대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신앙의 선배이자 간호사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많은 선배님들과도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어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도 너무 좋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좋았어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 간호학과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고 유익한 2박 3일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국 60여 개 간호대학에서 재학생 180명 참여

강사 곽은주 김명애 김자선 류하은 명기현 박소유 박수미 박예랑 빈영주 서현정 신경훈 심민서 오성훈 윤지혜 이경주 이명선 이혜림 임한나 전진희 주지선 최보은 한순희 홍성화



태어난김에 간호선교



Mission
Camp for
Student Nurse



제이크루 워십 팀



샤디팔리에 핀 자립의 소망

파키스탄 단기선교

선교기간 2026. 2. 26.(목) ~ 3. 2.(월)

선교장소 파키스탄 샤디팔리



양성열 과장 · 소화기내과

우리 팀은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5시간 떨어진 샤디팔리 지역의 빠끄리 종족 마을에서 보건캠프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파키스탄은 황량함 속에서도 묘한 역동성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지 교회팀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번 사역은 단순한 이동진료를 넘어 현지 보건 시스템의 전문화를 돕고 리더들을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진료 과정은 더디고 순탄치 않았으나, 현지인들과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오염된 식수와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며 약을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위중한 상태의 15개월 아이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줄 수 없었던 경험은 복음과 함께 실질적인 삶의 회복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를 깊이 체감하게 했습니다. 사역 후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구호 대상자가 스스로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헌신하는 현지 리더들의 모습에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보았고, 나를 예수병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해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현지에서 발견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선교적 삶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임정규 PA · 영상의학과

휴식을 기대했던 직원 연수 대신, 성령의 이끄심으로 파키스탄 단기선교에 몸을 실었습니다. 의료선교사로서 현지를 섬기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생각을 깊게 변화시켰습니다. 카라치에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샤디팔리 람쉬골리 마을의 의료 환경은 처참했습니다.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의 카테터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분통이 터지기도 했고, 오염된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깨달은 핵심은 '자립'입니다. 단순히 약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을 주민들이 보건과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척박한 조산 땅에 인내와 온유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마틴 잉골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샤디팔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스스로 일어설 그날을 꿈꾸며, 그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의대생 선교캠프 소감문

제10회 의대생 선교캠프

기간 2026. 2. 27.(금) ~ 28.(토)

장소 PMCI 선교센터



배태원 과장 · 진단검사의학과

의대생 선교 캠프에는 주님을 깊이 알고 싶거나, 의료 현장에서의 신앙 수호가 궁금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삶의 반석인 복음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김유진 · 전남대학교 본4 졸업 예정

세심한 지원 덕분에 예수병원의 긍정적인 수련 환경과 선교 비전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과장님들과의 식사 시간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말씀은 수련 기간 신앙 침체를 걱정하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전도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으며, 후배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캠프입니다.



김병선 신임 의선협회장

“의료선교의 다음 5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의선협)가 1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예수병원 김병선 소화기내과 과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1968년 창립된 의선협은 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50년 넘게 한국 의료선교의 역사와 흐름을 이끌어온 대표적 연합기관이다.

현재 의선협 산하에는 기독교 의료인 전문 직종과 주요 교회 의료선교부 등 총 84개 단체가 소속되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년 임기를 시작한 김 신임 회장은 4050 세대 중심의 젊은 임원진과 함께 '세대 교체'와 '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행정·원무 등 비의료인과의 동역을 강화하고, 의료선교 훈련원 재정비와 메디컬 미션 콘서트(MMC) 활성화를 통해 의료선교의 다음 50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교회와의 실질적인 사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의료선교 현장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역사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향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팀솔데

“우리의 치유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다.”

장기려 박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전영창 선생, 한상동 목사가 세운 천막병원 ‘복음진료소’에서 시작했다. 2026년 현재 40개 진료과와 844병상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성장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 병원으로서 치유와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Q.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추구하는 선교적 가치와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병원의 외형적 성장과 의료 명성을 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설립 정신을 계승해 매년 해외 의료선교팀을 파견하며 ‘치유를 통한 복음 전파’를 실현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4개국을 정기 방문해 단기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 필요를 세심히 살핍니다. 세계 각지 선교사 요청에 따른 비정기 사역도 병행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그리스도 사랑을 전합니다.

Q. 국내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담장 너머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도 돌봅니다. 김해 지역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해 연 4회 맞춤형 진료를 시행하며, 의료 혜택이 부족한 무의촌을 정기 방문합니다.

최근 지역 교회와 연계해 국내 의료선교를 복음의 통로로 활용하며 지역사회 영적 회복을 돕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의료선교를 지원하는 핵심 조직과 교육 과정이 궁금합니다.

원목실과 ‘장기려기념의료선교센터’가 선교 사역을 주도합니다. 특히 ‘고신의료선교훈련원(MMTC)’은 의대생, 간호대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 선교 교육을 시행합니다.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훈련생은 선교적 삶을 배우고 KPM 인준 수료증을 취득합니다. 이는 직업 현장을 선교지로 삼는 ‘일터 선교사’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병원의 핵심 비전입니다.



Q. 병원 내 자발적 신앙 공동체인 ‘팀솔데’를 소개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뜻하는 ‘팀솔데’는 병원 안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길 소망하는 자발적 모임입니다. 2018년 세 사람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40여 명의 팀원이 활동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원목실 지도 아래 원내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며 병원의 영적 흐름을 주도합니다.

Q. ‘팀솔데’의 주요 사역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팀솔데(Team Soli Deo Gloria)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자발적인 신앙공동체입니다. 사역의 뿌리는 매주 수요일 병원

예배실에 모여 드리는 기도 모임에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곡조 있는 찬양으로 이어져, 매달 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로비 찬양’과 외부 교회·단체의 예배를 돕는 섬김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예수병원의 ‘간호대생 선교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선교 비전을 전하는 등 사역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병원 곳곳을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 팀의 목표입니다.

귀한 추억과 큰 영광으로 남은 시간

서기항치과의원 서기항 원장

40여 년 전 진심을 담은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인연. 서기항 원장과 예수병원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일면식도 없던 설대위 전 예수병원 원장이 정성스레 한글로 쓴 편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예수병원과 함께했던 시간을 귀한 추억과 큰 영광으로 여기는 서기항 원장이 전하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어본다.



서기항 원장

1954년 전주 출생	예수병원 해외선교부장
전주고등학교 졸업	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광주기독병원이사 역임
광주기독병원 보철과 수료	치의학박사 취득
치과 군의관 복무	중부교회 시무장으로 은퇴
예수병원 치과과장	(현)서기항치과의원 원장
예수병원 합창단장	

하나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치과 수련병원을 만들어 매년 한 명씩 보철 전문 수련의를 교육한 점도 큰 보람이었다. 처음 배출한 제자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제자 부탁으로 현재 그가 속한 선교단체 이사로서 동역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허기석 내과 과장(현 허기석 내과) 후임으로 합창단장(지휘: 김성지 교수님)을 맡아서 시골 교회 순회 연주와 음반 제작, 해외 공연을 다녀온 일도 기억에 남는다. 특히 예수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으로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엥골드를 파송한 South Carolina Rockhill 장로교회와 설대위 원장님이 사시는 North Carolina Montreat 대학교회에서 한 공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공연 후 단원 50명과 설 원장님 댁에서 함께 찬양하며 한국 가곡을 부르며 내외분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던 모습은 현재 사진 한 장으로 남아있다. 친구인 김민철 당시 내과 과장 권유로 CMF(의료봉사동아리) 전북지부에서 활동하면서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네팔 의료선교도 다녀왔다. 기획실장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당시 이용웅 병원장님을 보필하며 예수병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병원임을 깨달았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예수병원을 사랑하는 동문과 함께 점심 모임을 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모임을 통해 예수병원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되새긴다. 현재는 주로 어르신들 임플란트와 틀니, 심미 보철을 진료하며, 환자들이 고통과 불편 없이 식사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지난해부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실천하는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무료로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도 하고 있다. 예수병원 임직원들에게 하나님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주길 바란다는 말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서기항 원장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음을 움직인 진심을 담은 편지

“1982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치과 군의관으로 제대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죠. 어느 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설대위 원장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치과 과장 자리가 공석인데 함께 일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죠.”
 그 당시 예수병원은 암 환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구강암 환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면서 상악동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틀니(obturator, 입을 닫는 보철장치)를 만들 의사가 필요했던 터였다. 서기항 원장은 한글로 정성스레 쓴 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제대 후 예수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1983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5년 6개월간 예수병원에서 근무했다.
 잊지 못할 순간도 많다. 구강암 환자는 상악동 절제술을 하는데, 이는 상악턱 절반과 구개를 절제하는 큰 수술이다. 처음 해보는 진료였고, 상악과 구개가 없는 환자를 보면 그저 막막했다. 성공적인 Obturator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 초기 석 달가량은 저녁 7시까지 남아서 진료했다. 잘못 만들면 설 원장님이 바로 전화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근무했던 시간이 귀한 추억이자 큰 영광이다. 치아가 없으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틀니가 빠져서 곤란하지 않도록 틀니를 만들어 준 일들도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글 병리와 주명진 과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에스겔 36:33-37)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병원이 한국인에게 리더쉽이 이양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사회가 갈라지고 직원들이 갈라지면서 서로 간에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년에 병원장이 3차례 바뀌고 재판이 수없이 반복되는 상황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예수병원을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병원이 아니라 야수병원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때문에 욕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국에서 너희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예수병원 직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병원을 다시 회복 시키는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그렇지라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병원 이곳에 거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정결케 하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시고 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여호와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게 하옵소서. (겔36:25-27)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시어 오래 황폐되었던 곳, 예로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고 중수 할 것 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곳 예수병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지 않고 오래 동안 예수의 이름이 망령되어 불려지고 있었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예수병원의 무너진 곳들을 수축하고 보수 하옵소서. (사61:3-4)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예수병원의 모든 식구들이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난하여지고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적하실 때 그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침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며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사 66:2-4)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 회복되며 그들이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수고의 대가를 배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병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병원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조롱받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밭에 곡식으로 풍성하여 다시는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사 61:6-9)

예수병원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병원신협 50주년

가치(Value)를 나누고
같이(Together) 걷다

예수병원신협은 언제 어떤 계기로 설립되었나요?

예수병원신협의 시작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6년 이전까지는 '교우회'라는 상호부조 조직을 운영해 오다가 정식으로 교우회 임원들이 신협교육을 받고 정식기관인 신협이 설립되었습니다.

1976년 당시 443명의 조합원이 약 1,174만 원의 자산을 출자해 신협을 시작했고, 예수병원에서도 초기 정착을 위해 2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우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상호부조 정신과 병원 공동체의 지원 속에서 예수병원신협이 출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협동의 가치가 지난 50년 동안 신협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 113개 직장신협 부문 중 1위를 비롯해 그동안 다수의 상을 수상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병원신협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신협중앙회 경영평가 직장신협 부문 1위 조합에 특별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예수병원신협은 2022년을 시작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총 네 차례 특별상을 수상하며 전국 직장신협 가운데서도 꾸준히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 직장신협은 2022년 136개에서 2026년 현재 113개로 줄어들고 있지만, 예수병원신협은 오히려 자산 규모가 329억 원에서 599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 그리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매해 예수병원 창립기념일에 병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기부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병원신협은 예수병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직장신협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6년 설립 당시 예수병원에서는 신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사무실 공간도 제공해 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신협은 자립 기반을 갖춘 이후 1999년부터 매년 병원 창립기념일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병원의 발전과 어려운 환자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발전기금도 3억9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병원 및 노동조합과 함께 신협에서도 ₩56,110,485을 출연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라기보다 예수병원과 신협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 온 협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병원신협은 모사업장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소감과 앞으로 이루고픈 가치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협동조합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협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해 만든 순수 민간 협동자본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이러한 협동의 가치가 더욱 꽃피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금융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다져온 신뢰와 가치(Value)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조합원과 함께(Together) 나아가는 예수병원신협이 되겠습니다.



예수병원신협 후원



예수병원 발전기금 지원



예수병원 체육대회 지원



효자2동 취약계층 후원

예수병원신협이 걸어온 길 SINCE 1976~

- 1976.03.23. 창립총회(초대이사장 정진호 취임): 조합원 443명, 자산 1,100만 원
- 1976.08.24. 재무부장관 인가 취득(제7-63호)
- 1995.08.28. 예수병원신협 사옥 신축(₩383,571,502 현 2주차장)
- 2019.09.01. CU편의점 및 의료용품점 암센터 2층으로 이전
- 2022.02.15. 자산 329억원, 경영최우수상 및 특별상 (전국직장신협 1위) 수상
- 2026.02.12. 신협 창립 50주년, 자산 599억원, 경영우수상 및 3년 연속 특별상 수상
장기공제 달성율 전국 1위, 농소형 및 직장조합 1위, 해외카드 목표달성 1위

수상 기록 특별상 4회, 경영대상 2회, 경영최우수상 8회, 경영우수상 3회(전국직장조합 경영평가는 2022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5회중 4회를 예수병원신협이 수상)

병원 발전기금 누적액 391,970,000원(1999년 ~ 2025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56,110,485원(1992년)

예수병원 체육대회 지원 234,200,000원(1985년 ~ 2025년)

조합원 혜택 입학축하금, 퇴직경조금, 애경사(결혼 및 별세), 총회기념품, 대명리조트, 조합원교육, 비과세 및 저율과세 등

Issue

예수병원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 베트남에 선진 술기 전파

전주 예수병원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 팀이 베트남 의료진의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해 선진 내시경 술기를 전파했다. 조 센터장 팀은 다낭과 후에 지역을 순회하며 학술 교류와 실전 기술 전수에 주력했다. 다낭에서 열린 '환미 ESD 워크숍'에서 조 센터장은 조기 위암 및 식도암 치료를 주제로 강의하고, 고난도 증례에 대한 라이브 시연을 직접 선보여 현지 의료진의 호평을 받았다. 이어 베트남 최대 소화기 학술대회인 'Best of HGE 2025'에서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한 '제3의 공간 내시경' 임상 진료법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조 센터장은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독자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예수병원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세계에 나누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예수병원의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입증하고 베트남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현지 시술 사진



Interview 2

예수병원 염소화 간호사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건 작은 나눔입니다

Q. 조진웅 과장팀과 함께 베트남 다낭, 팜응아이 등에서 선진 내시경 간호 술기를 전수하셨습니다. 현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부터 현지 병원의 고난도 시술에 참여하며 한국의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시연 직후 현지 병원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우리의 나눔이 실질적인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확인한 '간호사 염소화'의 향후 다짐이 궁금합니다.

저의 작은 나눔이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의 일상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의술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염소화 간호사

정유진 / 강다영 / 김지오 간호사



Interview 1

예수병원 조진웅 과장
사랑의 의술,
이제 우리가 갚을때



Q. 2019년부터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10여 개국에 내시경 기술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해외 의료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내년 초까지 연수 일정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숙련된 간호팀과 함께 매년 현지를 방문해 고난도 시술 시연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진 내시경 치료법에 대한 갈증이 큰 만큼 현지 의료진의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Q. 베트남 현지에서 펼친 활동에 대해

내시경 수술팀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매년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시연을 하고 강의도 합니다. 2023년 직장암 환자의 인공 항문 위기를 막은 시술을 시작으로, 위종양 절제 술기를 전수하며 현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4년 베트남 중부 지역 최초로 '경구내시경 근절개술'에 성공해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최근 베트남 최대 소화기 학술대회에서는 최신 술기인 '제3 공간 내시경'을 발표해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이토록 열정적으로 해외 의료 봉사과 기술 전수에 매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과거 선교사들이 전해준 의술로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예수병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의사들이 첨단 술기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은혜까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01.13.	전민일보	응급의료센터 박홍인 센터장, 소방청장 표창
2	02.04.	전라일보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 도입... 본격 운영
3	02.05.	전북일보	구바울의학박물관,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4	02.09.	이뉴스투데이	캄보디아 환아, 수술·재활로 웃음 되찾아
5	02.24.	전북도민일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6	03.04.	뉴스1	로봇수술센터 개소...환자 맞춤 정밀치료 기대
7	03.05.	의학신문	실시간 AI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도입
8	03.06.	전북CBS	전주 예수병원, 파키스탄서 지속가능 보건 시스템 구축
9	03.19.	한국기독교공보	방글라데시서 크리스찬 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10	03.24.	전라매일	중앙환자안전센터와 현장 간담회 성료
11	03.30.	의학신문	128년 역사의 예수병원, 구글 GWS 업고 스마트 혁신 선도
12	04.01.	의학신문	김갑태 대장항문외과 분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13	04.14.	이뉴스투데이	조충환 진료처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장관 표창 수상

PMC NEWS는 병원을 더욱 신뢰하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1 전민일보

응급의료센터 박홍인 센터장, 소방청장 표창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 박홍인 센터장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박홍인 센터장은 "현장에서 함께 대응해 온 응급의료진과 소방 구급대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 전라일보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 도입... 본격 운영



이번에 도입한 다빈치 SP는 기존의 로봇수술 방식에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더욱 정밀하고 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기존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과 달리 단일공 접근 방식을 채택해 보다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일 절개를 통해 로봇팔이 진입하므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환자에게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

3 전북일보

구바울의학박물관,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관장 주명진)이 호남지역 근대 의료사의 거점으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박물관은 2026년 국고 및 지방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2년 연속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문인력 지원사업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 △박물관문화사업 등이다.

4 이뉴스투데이

캄보디아 환아, 수술·재활로 웃음 되찾아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던 한 소녀가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따뜻한 의료 나눔을 통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캄보디아에서 초청돼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온 타리(Ren Thary, 9세) 양이 7주간의 치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5 전북도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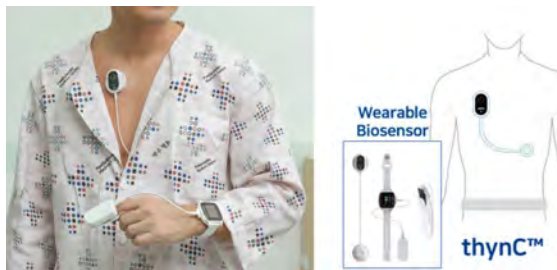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예수병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지역 내 민간 종합 병원 중 최초로 선정돼 지역 신장 질환 치료의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집에서 스스로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7 의학신문

실시간 AI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도입



이번에 도입된 '씽크'는 작고 가벼운 무선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신체에 간단히 부착해 심전도·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신호를 24시간 비접촉·비대면으로 연속 수집한다. 기존 유선 모니터링 장비의 이동 제한과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분석돼 병동 중앙 스테이션과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전달된다. 이를 통해 부정맥, 심실빈맥 등 응급 상황이나 미세 이상 징후를 골든타임 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6 뉴스

로봇수술센터 개소... 환자 맞춤 정밀치료 기대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 로봇수술 시설이 들어섰다. 본관에서 '로봇수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센터에는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SP'가 도입됐다. 이 장비는 좁고 깊은 인체 조직에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약 2.5cm 미만의 단일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 기존 다부위 절개 방식에 비해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입원 기간 단축과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8 전북CBS

전주 예수병원, 파키스탄서 지속가능 보건 시스템 구축



전주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이 파키스탄 카라치 및 사디빨리 지역에서 현지 주도형 보건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병원 측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람쉬콜리 마을에서는 초등학교 약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진행했다. 이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아동 25명에게는 집중 진료를 실시했으며 소화기내과 진료, 영상의학 검사, 재활 물리치료 등 전문 분야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9 한국기독교공보

방글라데시서 크리스찬 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전주예수병원과 광주기독교병원 등 국내 6개 기독교병원이 참여한 한국해외의료선교회(KOMMS) 방문단이 지난 3월 12~16일 방글라데시를 찾아 의료선교 사역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방글라데시 차세대 크리스찬 의료인 네트워크 구축과 꼬람플라 기독교병원(KCH)의 운영 컨설팅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방글라데시 사상 최초로 개최된 '기독교 의사 및 의대생 연합 모임(Fellowship Gathering)'을 지원하고, 크리스찬 의료인의 정체성 확립과 현지 의대생 멘토링, 정기 모임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10 전라매일

중양환자안전센터와 현장 간담회 성료



예수병원이 중양환자안전센터와 함께 환자안전 체계 점검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해 환자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예수병원은 중양환자안전센터와 권역별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호남권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11 의학신문

128년 역사의 예수병원, 구글 GWS 업고 스마트 혁신 선도



128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예수병원이 최근 구글 워크스페이스(GWS)와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전격 도입하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오래된 병원은 변화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과감한 IT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 극대화와 환자 중심의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12 의학신문

김갑태 대장항문외과 분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갑태 분과장은 30년간 전주예수병원에서 근무하며 대장암 예방·진단·치료에 헌신해 왔다. 지역 주민들의 암 예방 인식을 높이고, 수많은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분과장은 “지난 30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라며 “과분한 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자 곁에서 대장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3 이뉴스투데이

조충환 진료처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장관 표창 수상



예수병원 조충환 진료처장은 평소 투철한 직업정신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매진하며 지역민을 위한 건강주치의의 역할을 다해왔다. 이번 표창은 예수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의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NEWS

다시보기

건강지킴이 닥터 MBC ‘대사이상지방간질환’

3월 15일(일) 방송
MBC



소화기내과 이순관 과장

기존 ‘비알코올지방간질환(NAFLD)’으로 불리던 질환의 명칭이 최근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간의 문제를 넘어 비만, 당뇨 등 전신 대사 이상과 직결된 질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이 보내는 경고, 새롭게 정의된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의 진단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예수병원 소화기 내과 이순관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일(목) 방송
GOODTV NEWS

“선으로 그려낸 복음의 발자취” 임현희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 드로잉 기획전시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이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인 임현희 목사의 드로잉 작품을 중심으로, 전주 선교의 흐름을 ‘선’이라는 조형 언어로 풀어낸 특별 기획전시전을 열었습니다. 목회자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임현희 목사는 전북 지역에 전해진 복음의 여정과 선교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후원 계좌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131-020-826222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후원 방법에 관해 예수병원 발전후원회(063-230-886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 발전기금

전북권역재활병원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기금

1억 원 이상

이중주 염금숙

5백만 원 이상

김필례

5백만 원 이상

김창옥
임진한 백초옥

1백만 원 이상

박상호

1천만 원 이상

김선례
박성광
김광태 박호숙
김지혜
이희원
조명호

1백만 원 이상

강명석
광명어린이집
김제환
박숙희
이광영
황지옥

* 2026. 02. ~ 03. 기준 (*구간별 가~다 순)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검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목, 금	화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검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수	
	이종민	만성질환, 성인병, 검진초음파, 비만	-	화, 목, 금	
	김미진	성인병, 건강검진, 검진초음파	-	수	
	이혜규	성인병, 만성질환, 검진초음파, 금연, 비만	-	금	
	최미림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체장질환)	월~금	월~금	
	김호철	건강검진(치과)	월~금	월~금	
	오종은	건강검진(부인과)	월~금	월~금	
	이정재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체장질환)	월~금	월~금	
김수민	건강검진(소화기내시경)	월~금	월~금		
최진희	건강검진(내시경)	월~금	월~금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화, 수, 목	월, 화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목, 금	수, 목, 금	
	류마티스내과 230-1300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용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수, 금	화, 수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월, 목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금	금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월, 수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금	화, 수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수, 금	월, 목		
박호경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화, 목		
노건주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소화기내과 230-1300	류제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금	-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실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수, 금	화, 수, 금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전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수, 목	월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월, 화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	
	문혜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화, 목	목	
	순환기내과 230-1350	선인오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아영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소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정승희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목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내과 혈액종양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목	수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화, 금	수			
	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30-1360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한동수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백승민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방사선 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김정수	유방암, 자궁암	화, 수, 목	화,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 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수, 목	화, 목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월, 금	월, 수
호요한				고위험 산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	
박상호				신장, 성장 질환	화, 목	월, 화, 목	
곽현미		소아 호흡기		월, 금	월, 수, 금		
황동진		소아감염질환		화, 수, 목	수, 목, 금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영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이진호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강동구	안면거상, 뼈다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화, 목		
		허승곤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오치성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	화, 금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화, 목	화, 목		
송영진		안성형, 일반안과	월~금	월, 수, 목, 금			
안성현	망막, 백내장, 포도막염, 미숙아 망막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대표전화 1899-1843, 230-8114,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일정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여성 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월, 수				
	김경아	고위험산과,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화,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수, 목 *장애진화 산부인과 진료	화, 목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이미숙	흉부	월~금	월~금				
	김윤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정수연	흉부-심혈관계	월~금	월~금				
	노경희	유방	월~금	월~금				
	박범균	인터벤션	월~금	월~금				
	최진술	복부, 비뇨생식	월~금	월~금				
	김유영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이유니	간, 담도, 췌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화, 수					
김은영	외과응급	금	월, 목					
간담체외과 230-1400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용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	-				
	문재영	소화기질환, 일반외과	화, 수, 금	화				
	상부 위장관외과 230-1400	이종영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유방- 갑상선외과 230-1400	김철승	유방-갑상선	화, 금	화		
			김예정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월, 목	목		
			최은혜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수	월, 수, 금		
			혈관이식 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월, 수, 금	화	
소아외과 230-1400				김예정	소아외과	월, 목	목	
				홍부외과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화, 금	월
				국제진료소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	-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응급의학과 230-8280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박홍민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백중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심동오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유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민수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한민정		소아응급	월~일	월~일				
전경두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월, 금	화, 목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화, 목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월	월			
	윤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목, 금	화, 수, 목, 금			
	유기배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월, 화, 수, 금	화, 목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수, 목	화, 수, 목, 금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화, 목	월, 수, 목, 금			
	김태환	중추신경계 재활, 근전도, 연하재활,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월, 수, 목, 금	월, 화, 금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최말례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화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월, 수, 목		
		한명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정형외과 230-1430		박경환	조현병, 기분장애(우울&조울), 화병,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신체화상해, 불면증, 정신치료	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정의섭	고관절, 골반	월, 수	-		
		신홍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김영찬	슬관절 및 족부족관절	수, 금	월, 수, 금		
	고준희	척추, 외상	수	수, 목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역학검사	월~금	월~금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금	월~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경역, 검사정보학	월~금	월~금			
치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월, 수, 금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월, 화, 수	월~금	
			행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 중앙,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문은하	근골격, 중앙,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You Make Me Warm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 -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